

冷害農家에 糧穀대여

無利子로 82년까지 現物償還케

하루 5百g씩 한집에 3~8개월분

정부는 이상저온과 긴장마로 을 쌀수확량이 평년작을 크게 밀돌아 쌀부족농가가 많이 나올것으로 보고 식량이 부족한 농가에 無利子로 대여해 주기로했다. 鄭宗澤농수산부장관은 14일상오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정부양곡대여는 가구 별로 식량이 모자라는 정도에 따라 3~8개월분 범위안에서 오는 12월, 3월 각 1개월씩 2회걸쳐 쌀 40%(2백 g) 보리쌀30%(1백 50g) 밀가루30%(1백 50g) 비율로 1인 하루 5백g씩 지급하게 된다고 밝히고 상환은 매년 정부양곡수매기간중에 균분해서 상환토록 했다고 말했다.

대여기간은 1회가 80년 12월 1개월간, 2회가 81년 3월10일~4월9일 사이의 1개월이며 상환기간은 1회가 쌀은 81년12월20일까지, 보리쌀·밀가루는 81년8월10일까지이고 마지막 상환은 82년의 각각 같은 기간이다.

鄭장관은 상환조건이 現物상환원칙으로 상환 당시의 정부양곡방출가격을 기준한 조곡(벼)으로 상환하고 밀가루는 상환당시의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쌀·보리 또는 현금등으로 환산, 상환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鄭장관은 이날 경기, 충청, 전남 북 평야지대는 다행히 평년작 수준에 가깝다고 말하고 양곡 부족에 대비, 정부가 이미 미국과 64만4천톤, 濠洲와 10만톤 등 모두 74만4천톤(4백65만석)을 계약 완료하고 10월말 정확한 추곡 작황 통계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물량을 추가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곡수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리 혼식등으로 쌀10%를 절약하면 3백70만석의 쌀을 절약, 약 2억7천만달러(한화 약1천7백억원)의 외화를 절약할수 있기 때문에 식량사정이 어려운때를 맞아 식량절약이 절실히함을 강조했다.